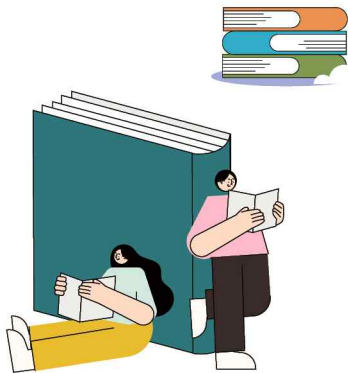




교육가족에게

사서가 전하는 책 이야기

성인 문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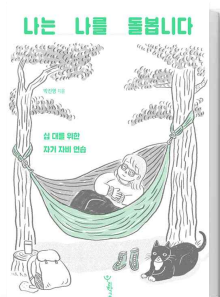
우리가 인생이라 부르는 것들
정재찬/인플루엔셜/2020

성인 비문학



지금 이대로 좋다
법륜/정토출판/2019

청소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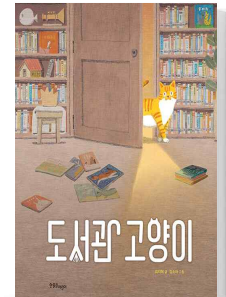
나는 나를 돌봅니다
박진영/우리학교/2019

어린이



싫어해! 그 반대
이상교/이마주/2021

유아



도서관 고양이
최지혜/한울림어린이/2020

성인 문학



우리가 인생이라 부르는 것들

정재찬/인플루엔셜/2020/355쪽

책 속 한 구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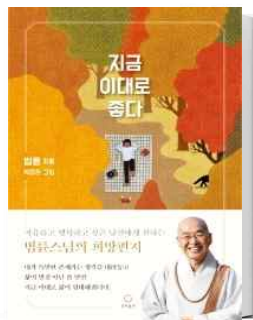
괜찮아, 몰라줘도 돼. 네가 슬퍼하는 걸 보니 애비로서 내가 그리 잘못 산 것 같진 않아 그것으로 족하단다. 자책하거나 미안해하지도 마렴. ... 너의 성장을 지켜보며 내 인생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아니? 내 덕에 네가 산 것만 아니라, 실은 네덕에 내가 열심히 살 수 있었다(68쪽)

우리가 인생이라 부르는 것들

우리가 인생의 과정에서 함께할 부모, 자식, 배우자 또는 해야 할 노동, 공부 등에 관해 시와 함께 저자의 경험과 생각을 담담하게 이야기한다. 인생에 있는 정해진 답이나 위로 대신 고개를 끄덕이고 인생의 맛을 되새기게 만드는 가슴 뭉클한 시를 소개한다. 그냥 읽었으면 이해하기 어려웠을 시들을 저자의 경험, 생각과 함께 읽다 보면 시가 주는 메시지를 쉽게 알 수 있고 이해 속에서 커다란 감동을 느낄 수 있다. 천천히 한 장 한 장 읽으며 위로와 감동의 시간을 가져보길 희망한다.

광양공공도서관 권은희

성인 비문학



지금 이대로 좋다

법륜/정토출판/2019/217쪽

책 속 한 구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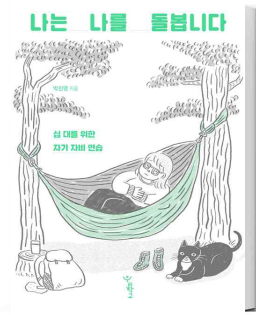
아무리 늦추위가 기승을 부려도 때가 되면 어김없이 봄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마음의 봄은 계절과 달라서 한겨울에도 내가 봄을 맞을 준비가 되어있으면 봄이 찾아오고, 한여름이라도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마음이空空 열어 봄이 찾아오지 않습니다(178쪽)

자유롭고 행복하고 싶은 당신에게

깨달음은 특별한 게 아니라 사실을 사실대로 알아차리는 것이다. 우리가 괴로운 건 무슨 죄가 많아서, 운이 나빠서가 아니라 사실을 사실대로 알지 못하는 인식 상의 오류 때문이다. 사실을 사실대로 아는 것을 지혜라고 한다. 과거나 미래가 아닌 지금, 저기가 아닌 여기, 남이 아닌 나에게 깨어 있는 것이 행복하고 자유로워지는 길이다. 화단에 핀 꽃을 보는 것처럼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의 상대를 이해하면 내 마음이 편안해 진다. 이것이 바로 나를 아름답게 가꾸는 방법이다.

영광공공도서관 김경혜

청소년



나는 나를 돌봅니다

박진영/우리학교/2019/151쪽

책 속 한 구절

친구가 힘들어할 때는 친구에게 필요한 따뜻한 응원과 위로를 건네면서 왜 나 자신한테는 이렇게 못된 말들을 쏟아 붓는 걸까요? 소중한 사람에게 그러하듯이, 힘들어 하는 나에게도 따뜻한 말을 건넬 수는 없는 걸까요?(12쪽)

내가 나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될 수는 없을까요?

유독 자기 자신에게 엄격한 사람들이 있다. 친구들이 실수했을 때는 괜찮다고, 다 잘 될거라고 따뜻한 위로와 응원을 보낼 줄 알면서 자신이 잘못했을 때에는 '나는 정말 바보야. 이런 내가 정말 싫어'라며 매정하게 군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고 잘못을 저지른다. 단 한번도 잘못을 하지 않거나 부족한 점이 전혀 없는 완벽한 인간이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인생은 험난하고 우리는 살면서 한두번쯤은 반드시 미끄러지게 되니까... 이 책은 그런 순간순간 내가 나의 가장 좋은 지지자가 될 수 있도록 지금 나의 모습을 미워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준다. 완벽하지 않아도, 고민이 많아도, 매일매일 행복하지 않아도 나와 함께하는 시간이 한결 편안해지길 바라본다.

담양공공도서관 권남익

어린이



싫어해! 그 반대

이상교/이마주/2021/74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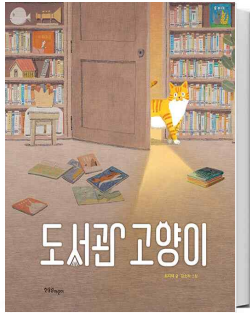
책 속 한 구절

사람 사이의 처음은 '관심'이에요. 처음에는 차가울지도 모르는 관심이 따뜻한 관심으로 바뀌면서 세상은 훨씬 덜 외롭고 또 포근해질 겁니다(71쪽)

우정, 이해와 배려

아이들을 위한 창작 동화로 단지와 삼총사 친구들 사이에 새로운 친구가 생기면서 일어나는 이야기다. 삼총사 사이에 낯선 친구가 들어오면서 일어나는 일들과 새로운 친구를 알게 되면서 느낄 수 있는 다양한 감정과 행동들을 이 책을 통해 배울 수 있다.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으며,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말하고 관심과 배려의 말 한마디와 행동이라면 친구를 사귀는 일이 어렵지 않다는 것을 이 책을 읽는 모든 아이가 자연스럽게 느끼게 되길 바란다. 초등 저학년 여자아이들이 읽으면 더 좋아할 것 같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책이다.

함평공공도서관 공병현



도서관 고양이

최지혜/한울림어린이/2020/40쪽

책 속 한 구절

와우, 그림책이 이렇게 많다니! 눈은 휘둥그레, 귀는 쫑긋, 한눈에 반하고야 말았어(11쪽)

우리 도서관에서 즐겁게 놀래?

쫑긋하며 뽀족한 귀, 보드라운 털, 통통한 다리, 귀여운 배를 가진 고양이를 사실적으로 표현한 그림책입니다. 나른하고 따듯한 어느 봄날, 고양이는 봄골을 걷다 바람숲도서관을 만났습니다. 아이들이 그림책을 보고 있는 것을 보고 밤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도서관에 있는 여러 그림책을 보고 밤마다 신기한 여행을 떠나고 도서관 친구로부터 낮에도 만나자는 편지를 받고 아이들과 평화롭게 놀다가 마지막으로 책을 읽는 아이들에게 같이 놀자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그림책은 그림만 가지고도 이야기를 풀어나갈 만큼 은은한 색감과 사실적으로 묘사된 장소가 페이지마다 세밀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사랑스럽고 귀여운 고양이가 도서관에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이들에게 도서관에 대한 흥미를 자연스럽게 이끌어 줍니다.

목포공공도서관 고태희

